

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진출 경험과 시사점

〈요 약〉

- 주요 선진국 은행들이 세계적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쟁의 범위를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적극 확대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음
 - 국내 대형은행들도 지금과 같이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시장점유율 제고에 치중하는 데서 탈피하여 성장동력을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할 것임
- 국내은행의 국제화 수준은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극히 미미
 - 2005년말 기준으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자산(총자산의 2.3%) 및 당기순이익(전체순이익의 3.0%)은 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점포 자산(총자산의 20~90% 수준) 및 당기순이익(전체 순이익의 43~70% 수준)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
 - 해외점포의 영업도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, 그리고 해외교포 등과의 거래가 대부분
- 국내 대형은행의 경우 규모상 외국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
 - 우리나라 대형은행의 자본규모는 Citi 등 초대형 다국적 은행들에 비해서는 작지만 해외영업 활동이 활발한 호주의 ANZ그룹 및 싱가포르의 DBS은행 등에 비해서는 큰 수준임
 - ※ 주요국 은행의 기본자본(05년말기준) 비교: 국민(115.7억달러), 호주 ANZ그룹(115.4억달러), 싱가포르 DBS은행(78.8억달러)
- 종합적 진출전략 수립 필요
 - 국내은행들은 세계적 조류를 감안하여 성장기반 확대, 리스크 다변화,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
 -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,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

1. 검토배경

- ①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은행들이 금융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확대가 긴요
 - 주요 선진국 은행(HSBC, Citi, UBS 등)의 해외진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

2. 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진출 동기 및 전략

- ① 주요 은행의 해외진출 목적은 ① 초기단계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, ②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별·영업부문별 리스크 분산 및 국내시장에서의 성장 한계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보 등이었음
 - 특히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스위스(UBS), 네덜란드(ABN AMRO) 등 유럽 대형은행의 해외진출은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높아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촉발되었음
 - *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소수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시장점유율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
- ② 주요 은행의 해외진출 지역은 ① 초기단계에서는 대체로 인접지역이나 문화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, ② 1990년대에는 정치적·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의 투자은행부문 등에 집중되었음
 -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소매금융업에 강점을 지닌 HSBC 및 Citi 등이 신흥시장국의 소매금융시장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였음
- ③ 주요 은행의 해외진출 방식은 초기단계에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 진입규제가 엄격하여 인수·합병방식보다는 주로 지점을 설치하여 해외에 진출
 - 1980년대 이후에는 일시에 영업망 및 고객 확보가 가능한 현지 금융기관 인수를 확대

3. 국내은행의 국제화 현황

- ①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28개국에 113개(2006년말 기준)이며 대부분이 지점임
 - ※ 현지법인은 미국, 홍콩, 베트남 등에 27개임
 - 주요 진출지역은 국제금융 중심지인 미국, 영국, 홍콩,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, 일본, 베트남임
- ② 국내은행 해외점포 자산은 276억달러(2005년말 기준)로 총자산의 2.3% 수준 (주요 선진국 은행의 경우 20~90% 수준)
 - ※ 특히 호주 ANZ, 싱가포르 DBS 등은 해외자산의 비중이 모두 33%대 수준임
 - ※ 경상GDP 대비 해외자산 비율(2005년 기준)도 국내 최대 자산규모 은행(국민)의 경우 0.2%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 은행의 경우 5.2%~386.0% 범위
 - 국내은행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4.0억달러(2005년말 기준)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3.0% 수준 (주요 선진국 은행의 경우 43~70% 수준)

국내은행 및 주요 해외은행의 해외점포 자산 및 당기순이익 비중
(2005년말 기준)

	(%)									
	국내은행 전 체	국민	신한	우리	외환	Citi	HSBC	SCB	호주 ANZ	싱가폴 DBS
해외자산/총자산	2.3	0.9	3.1	3.4	8.3	33	42	68	33	33.4
해외순이익/총순이익	3.0	0.9	7.2	5.4	5.8	43	48	70

- 해외점포 영업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, 그리고 해외교포 등과의 거래가 대부분임
 - ※ 해외점포의 국내기업, 교포 및 교포상사에 대한 대출비율(2005년말 기준)이 전체 여신의 90%에 달하며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여신은 약 8%에 불과
- ③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(transnationality index) 지수*가 도이치은행, 스위스 UBS, 네덜란드 ABNAMRO은행 등 주요 선진국 은행은 2004년 기준으로 60을 초과하고 있으나 국내은행의 TNI지수는 3.4로 선진국 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

* TNI지수 = {[(해외자산/총자산)+(해외수익/총수익)+(해외인원/총인원)]/3}×100

4. 시사점 및 향후과제

가. 시사점

1) 해외진출에 의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

① UBS, ABN AMRO은행 등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세계적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쟁의 범위를 국내 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적극 확대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음

○ 국내 대형은행들도 지금과 같이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시장점유율 제고에 치중하는 데서 탈피하여 성장 동력을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할 것임

※ 우리나라의 은행산업도 집중도가 외환위기 이후 은행간 인수·합병으로 크게 상승(자산규모 기준 상위 3개 은행의 점유율은 '97년말 25.2%에서 '05년말 47.9%로 2배 가까이 상승)하여 추가 합병이나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경쟁만으로는 조만간 성장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

② 국내 대형은행의 경우 규모상 외국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

○ 우리나라 대형 은행의 자본규모(2005년말 기본자본 기준)는 Citi 등 초대형 다국적 은행들에 비해서는 작지만 호주의 ANZ그룹 및 싱가포르의 DBS은행 등에 비해서는 큰 수준임

※ 호주의 ANZ그룹(115.4억달러) 및 싱가포르의 DBS은행(78.8억달러)의 기본자본 규모는 국내 2위(71.7억달러) 및 3위 은행(71.6억달러)에 비해서도 매우 크지는 않음

※ Standard Chartered가 제일은행을 인수한 시점의 기본자본 및 총자산 규모(2004년말 기준)는 각각 79.6억달러 및 1,416.9억달러로 당시 국내 최대 은행(78.0억달러 및 1,766억달러)에 비해 총자산 규모는 훨씬 작은 수준임

주요 은행의 기본자본 규모 및 세계순위
(2005년말 기준)

	호주 ANZ	싱가폴 DBS	국민은행	우리은행	신한은행
기본자본(억달러)	115.4	78.8	115.7	71.7	71.6
전세계 순위	52	74	51	87	88

자료: The Banker, 2006.7

2) 종합적 진출 전략(인수·합병, 인접지역 또는 선진국) 수립 필요

① (진출방식) 국내은행들은 세계적 조류*를 감안하여 성장기반 확대, 리스크 다변화,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

(2007.3.14, 은행의 해외진출, 경제보좌관실)

※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HSBC, Citi나 비교적 해외진출 역사가 짧은 UBS, ABN AMRO 등은 모두 1990년대 이후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현지시장 또는 전세계 영업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

- (진출지역) 문화적·지리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IT기술, 소매금융 등 우리나라 은행의 강점 활용이 가능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의 중규모 은행을 인수하여 지명도를 높이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음

나. 향후과제

1)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

- ① 정부가 발표한 「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」(07.1.15)의 세부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

-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금융기관 진출요건 완화 등
- 해외 익스포저를 포함한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시는 강화

2)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우수사례(Best Practice) 발굴

- ①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우수사례(Best Practice)를 발굴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

- 5월경에 개최하여 우수사례(Best Practice)에 반영된 해외진출 경험으로부터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관련 시사점을 모색